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오라동자연문화유산보존회장

갑진년, 값진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4년을 맞이하고, 1월이 절반을 넘었다. 명실상부한 '갑진년'이 드는 입춘이나 설날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천간(天干)의 첫째인 '갑(甲)'은, 방위가 동이며 색이 푸른색이다. 또한, '진(辰)'은 용(龍)이다. 그래서 '갑진'은 '동방의 청룡'이라고 한다. '갑'이 쓰인 말, '갑을 관계'와 '갑질'의 뜻을 살펴보았다.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은 각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갑을 관계'는 계약을 맺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와 불

리한 지위에 있는 자의 관계,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갑'과 '을'로 대신해 표기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일반적으로 '갑'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을'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나타내고 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참견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다. '갑을 관계'와 '갑질'의 의미가 수직적 상관관계와 부당한 행동으로 설명되면서 갑의 행위가 폄하되었다. 갑은 을과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사물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다. 그 '갑'이 '질'과 함께 하면서 그 가치가 비하되고, 나쁜 짓에 두루 쓰이고 있다. 정상적인 '갑의 행위'도 갑질로 불리면 정당성을 잃은 잘못된 일이 된다. 누구든, 자칫하다가 '슈퍼 갑'이나 '울트라 갑'으로 몰리면서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자기를 약자로 자칭하면서 갑질보다 더 심한 '을질'을 하는 부류들도 있다. 때로는, 유사한 행위도 진영과 그 유·무익에 따라 '당연한 일'과 '갑질'로 갈린다. 이들은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한 시대의 단면이다. 난국의 모습은 지난해 말 국내 교수진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에서도 보인다. 1위가 '견리망의(見利忘義, 눈앞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였다. 그 선정 이유들을 보자. 정치는 원래 국민을 바르게 이끈다는 뜻인데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대로 행동한다. 전세 사기나 교권 침해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일도 빈번했다.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자들이 행세했다. 이런 세태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서도 보였다. 지금 국민을 오래 힘들게 하는 혼탁함이 어디 이들뿐이라. 2위를 한 '적반하장'까지 놓고 보면, 우리는 난세에 살고 있다. 새해에는 푸른 용의 기운이 이 시대의 혼돈을 견어냈으면 좋겠다. 나라가 수렁을 벗어나 정의로움과 품격을 조금이라도 되찾았으면 좋겠다. 분열과 대립, 갈등이 줄어들고, 이(利)보다 의(義)가 앞서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나라, 국민이 '갑'이다. 국운이 올 4월에 그 '갑'이 하기에 달렸다. 풍진제상이 계속되는 태평세계가 오든 그것은 국민의 책임이다. 유권자가 정신을 차리고 '갑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이유다. 갑진년이 나라와 국민에게 값진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열린마당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



한영규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겨울철 제주 곳곳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던 갑골. 노지 갑골 수확이 마무리되고 잠시간의 농한기가 지나면 올해 갑골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갑골나무 정지·전정 작업이 진행된다. 정지·전정은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과실 품질을 높이며, 해저리 폭을 줄이는 등 갑골 재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농작업 중 하나다. 하지만 매년 정지·전정 작업 시 기인 3~4월이면 어김없이 농작업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정지·전정 작업은 기우나 튼튼한 날카로운 농

기구를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목재 파쇄기를 이용한다. 최근엔 전동 가위, 기계톱의 사용이 늘어나며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정지·전정 기간 중 46건의 목재 파쇄기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2건은 사망에 이르렀다. 농업은 업무상 사망·사고율 기준 세계 3대 위험 산업 중 하나로 근로자의 재해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농작업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농업인이 자신의 안전보다 농산물 재배·생산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안전 수칙을 꼭 실천하며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안전한 농작업을 했으면 한다.

뉴스-in

도교육청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눈길'

2주간 100여명 대상 연수 진행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해 눈길.
도교육청은 '아리ारी 마을교육활동가, 교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2주간 도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수생들은 도내 초·중등 교사들의 마을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마을수업설계를 습득하고, 마을수업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을교육활동가 협력수업을 희망하는 학교와 마을교육활동가를 연결시켜 초·중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협력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취약계층 방법시설 무상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법시설과 방법방충망 등 방법시설 설치를 무상 지원.
취약계층 방법시설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자치경찰단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취약계층 방법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사설

미분양 쌓여도 집값 꿈쩍 않아 우려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태영건설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다.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갔으나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건설사들의 위기가 커진 가운데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3㎡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1736만원1000원이다. 전년 동월 대비 12.29%, 전월 대비 1.51% 각각 뛰었다. 제주도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는 2574만3000원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17%나 올랐다. 특히 제주도의 평균 분양

가는 서울(3494만원7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미분양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전국 최고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주지역의 분양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2510호에 달한다. 미분양주택 중 '약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계속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11월 기준 1028호로 전달(1001호)보다 2.7%(27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국토연구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를 미분양주택 '위험발생단계'로 분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미분양주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집값은 요지부동인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욱 더 우려된다.

수소트램 도입 갈 데까지 갈 것인가...

제주형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추진된다. 민선 8기 제주도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이 그동안 적잖은 비판에도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수소트램 도입에 따른 도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 중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트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이다. 수소트램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전략인 셈이다. 제주도의 수소트램 도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소트램 2개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수립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유로 수소트램

연구용역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민들이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얘기가. 도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결국 제주도의 정면 돌파가 점쳐지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소트램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수소산업 활성화 등 생태 환경적 가치와 지역 균형발전, 관광효과 등 '장밋빛' 구상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수소트램 도입에 따른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여론몰이를 통한 공론화는 안한 만 못하다. 제주의 미래도 좋지만 '돈 먹는 하마'로 비판을 받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등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도 도정의 몫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유행수(주)삼다 대표이사) 병부 남평 문공 상식(향년 82세)께서 서기 2024년 1월 16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4년 1월 1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4년 1월 18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천왕사
배우자 고옥란
딸 문희경 사 위 유행수
정실 정하
정혜
보경
의 손우연주
\* 연락처 : 유행수 010-2696-678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내]

왕칠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이며 최고의 약용식물임
왕칠나무의 효능
\* 혈액순환 촉진 \* 간기능 개선
\* 생육 촉진 \* 항암·항산화 효과
왕칠발효액의 효능
\* 소화 흡수를 상승 \* 고기 특유의 냄새 중화
\* 요리시 원액 : 물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약6시간 이상 침적할경우 육질이 부드러워 고기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킴
\* 음용시 원액 : 물 혹은 커피, 요구르트 등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수시로 드시면 좋음
왕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濟大수의학과 70대 수의사(김상훈) 개발중
문의전화 010-5169-4520

척추 허리 골반
중증마비(실어증), 어깨, 영치, 다리통증, O.X다리, 키크기, 성장 교정
1회 체력으로 대만족
Snpe, 활력도비술, 정통고려활법전승계승자
대한활법연맹
010-7121-8275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을 가야할 것인지, 이공 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